

중일전쟁기(中日戦争期)의 전쟁시(戦争詩)*

- 미요시 타쓰지 「영령을 고국에 모셔 들이다」를 중심으로 -

박 상 도**

本稿では三好達治の戦争関連詩を考察した。具体的に日中戦争期に書かれた幾つの文章と一篇の詩を中心に論を進めた。三好は戦争の実体については曖昧さを感じながら同時にある感動をも感じていた。何より、戦争自体への関心より明確な詩観があった。詩の本質から外れた作品については厳しい批判の声を上げた。

一篇の詩「おんたまを故山に迎ふ」は普段の詩人の主観がよく現れている作品である。音律があり、古風らしくその内容も抒情豊かである。戦争と関連した内容を扱いながら祖国思想を越えた詩情が豊かに表現されている作品である。

この作品を理解する上で、大事なのは、個人的な次元で製作されたとしても公的領域に受容される時、拡大、再生産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こういう観点から見ると、この詩は戦意高揚の役割をある程度せざるを得ない構造を持っている。詩人の意図とは関係なく、当時の時代状況の中で公的な領域のものとして活用される余地が十分ある作品である。特に放浪者として詩的話者を設定して英霊を慰めるという構図は、この詩が国家概念の高揚という側面を内包していることを物語るものである。

キーワード：日中戦争、主観、鎮魂、詩情、戦争詩
(중일전쟁, 주관, 진혼, 시정, 전쟁시)

1. 머리말

미요시 타쓰지(三好達治, 1900-1960)의 문학 세계를 논함에 있어서 전쟁관련시의 고찰은 예민한 부분이다. 이는 전쟁 관련시 자체를 논하는 것은 전쟁책임 문제를 불러오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보다도 전쟁시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며 문학성을 논할 가

* 본 논문은 201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일본근현대문학

치가 있겠냐며 전쟁시 자체에 대한 연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미요시의 전쟁 관련시 연구는 서정적 전통시인의 관점에 입각한 연구에 비해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실제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연구 자료의 측면에서도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나마도 전쟁시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전쟁시 제작에 대한 평가의 부분에 그 무게 추가 기울어져 있다. 이 평가라고 하는 것도 주로 비판적인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¹⁾

이러한 비판적 견해의 일단을 보도록 하자. 전쟁시로서의 첫 번째 시집 『첩보 이르다(捷報臻る)』를 들어서 「만일 이 작품에서 대시대적이며 공허한 말의 기교를 제외한다면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 그것은 시대의 위정자나 그 선전자들의 정보선전의 내용 바로 그것인 것이다. 형성되어왔을 시인의 자율성 혹은 주체성은 단숨에 날아 가버린 것이다」²⁾라고 비판하는 이가 있다. 시국에 영합한 시인의 몰주체성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 몰 주체적으로 평가받는 전쟁 관련시에 대한 연구는 완전히 무의미한 것인가? 비판일변도의 분위기 가운데 시인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자의 견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³⁾ 이런 측면에서 전쟁 관련시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그러면 미요시의 전쟁시는 언제부터 어떤 양상으로 시작되었을까? 서정시인, 자연시인 미요시가 자신의 시적 가치를 전도시킨 것은 어느 시점이며, 그러한 과정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었을까? 본격적으로 시인이 전쟁시를 쓰게 된 것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이다. 전쟁시와 관련해서 비판을 받는 것도 이 시기에 남긴 3권의 시집 때문이다. 하지만 15년 전쟁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일 전쟁시기부터 미요시는 전쟁과 관련한 행보를 보였다. 여러 평론과

1) 대표적으로 미요시의 전쟁시를 비판한 것에는 鮎川信夫의 「三好達治論」과 吉本隆明의 「四季派の本質 - 三好達治を中心に -」이 있다. 이 두 문장은 모두 小田久郎篇(1979) 『現代詩読本7 三好達治』思潮社, pp.107-125에 수록되어 있다.

2) 河野仁昭(1978) 『四季派の軌跡』白川書院, p.112.

3) 미요시의 전쟁시를 옹호한 대표적 연구가는 구와하라 다케오(桑原武夫)이다. 그는 전후 발표한 문장 「三好達治への手紙」에서 미요시는 자연시인이었기에 전쟁을 자연현상으로 보고 전쟁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桑原武夫(1967) 『思想との対話5 事実と創作』講談社, p.111 참조)

소수이긴 하지만 전쟁과 관련된 시를 남기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가 본격적인 전쟁시를 쓰기에 앞서 전쟁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하였으며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일 전쟁기를 전후한 그의 작품 분석을 통해 전쟁시의 모태의 양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전쟁의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떠한 시적 세계를 구축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시인의 시적정신(詩的精神)

2.1 중일전쟁에 대한 인식

1937년 7월 7일 발발한 중일전쟁은 8월에 이르러서는 상해로까지 전세가 확장되었다. 당시의 장개석(蔣介石)군의 항일의지는 확고한 것이었고 준비도 주도면밀하여 일본군대는 열세 가운데 있었다. 하지만 일본군은 조금씩 군대를 증원하고 많은 희생을 치르며 반격에 나서고 있어 전세가 호전되고 있었다.⁴⁾ 미요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1937년 10월 19일 상해로 향했다. 10월 22일 상해에 상륙한 미요시는 거의 한 달간 『개조(改造)』 『문예(文芸)』의 전 시특파원, 즉 종군기자로 활약하였다. 전장의 생생한 기록을 「상해잡관(上海雜觀)」이라는 제목으로 『개조』 11월, 12월호에 게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전쟁보고기를 남겼다.⁵⁾ 이때부터 그는 그 전까지 사회와 무관심하게 지내오던 양상과는 전혀 다르게 적극적으로 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⁶⁾

4) 大門正克(2009) 『戦争と戦後を生きる 十五』 小学館、p.111 참조

5) 이 당시의 그가 남긴 보고기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上海雜感」 「霖雨泥濘」 「半宵雜記 - 上海雜感追記 -」 「霖雨泥濘」 「上海雜感続」 「上海所見断片」(여기까지는 『夜沈々』(1938年)에 수록), 「旧友の戦死」 「あの頃の上海」 「南郷大尉の思出」 「新しい秋」 「松風山雜録」(여기까지는 『風蕭々』(1941年)에 수록)

6)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기 전 미요시는 신슈의 온천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다. 번역을 하거나 유머러스하고 고풍스러운 4행시를 써서 『南窗集』(1932年 8月)외 2권의 4행 시집을 발간하는 등 세상과의 접촉은 거의 하지 않고 지냈다.

하야시 후사오(林房雄)가 상해를 다녀온 후 쓴 보고서 「상해전선(上海戰線)」을 읽고 난 후 쓴 문장 『하야시 후사오저 〈전쟁의 옆얼굴〉(林房雄著 『戦争の横顔』)』(『文学界』 1938년 3월)에서 문학자의 현지보고의 신뢰성에 대해 말한다. 「거기에는 사실을 사실 대로 세밀하고 정확한 리얼리티와 함께 전한 보고가 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들을 우리들의 정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흔들어 놓는 것이다」⁷⁾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그는 신문 저널리즘의 현지보고 현실에 대해서는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의 신문기사의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그것이 만들어 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문학자의 현지과건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⁸⁾ 이러한 견해를 밝히면서 시인은 중일전쟁에 당면하여 현장의 보도를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문학자에게 주어진 종군기자로서의 임무」라고 말한다.

이는 전쟁시기의 문학자의 사명의식을 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시인은 문학자로서 종군기자로 파견된다고 하는 현실에 어떠한 부자연스러움도 느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장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또 감동 있게 전하는 것이 문학자의 본분이라고 주장하는 시인의 모습을 통해 국가주의가 수행한 전쟁의 실체에 대한 어떤 고민의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다.

다만 전쟁 자체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밝힌 부분은 있다. 「추풍산잡록(秋風山雜錄)」⁹⁾에서 미요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한구(漢口)가 함락되었다 해도 전쟁은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설령 전쟁이 머지않아 끝난다 해도 지금의 비상시국이 아무래도 종식될 것 같지 않은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일부러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7) 林房雄(1938) 「戦争の横顔」 『文学界』3月号(『三好達治全集 6』 筑摩書房、p.61. 所収) (이하 전집 인용은 간략히 표기함)

8) 『全集 6』 p.61.

9) 초출은 미상이지만(『風蕭々』(1941年)에 수록) 인용문 앞의 문장에서 「작년에 상해에 갔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구 함락」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중일전쟁 발발 후 1938년경 발표된 것 같다.

이 있어서이지만 우리들의 조국의 앞날에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수한 곤란과 장애가 기다리고 있
는 것만큼은 아무래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¹⁰⁾

이 당시의 문장 중에는 보기 드물게 「비상시국」에 대해 견해를
표현한 부분이다. 미요시는 설령 전쟁이 끝난다하더라도 「비상시
국」이 지속될 것이며 「조국의 앞날」에는 「곤란과 장애」가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미요시가 우려하는 조국 일본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 중에 은근히 중일전쟁 수행
주체인 조국 일본의 안위를 걱정하는 시인의 면모를 엿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초래하게 될 국가적 곤란과 장애와 곤란을 걱
정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고 중일전쟁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 미즈구치 요지(水口洋治)는
「타쓰지의 회전(達治の回轉)」(『三好達治論』林道舎, 1984年)에서 위
인용문을 근거로 「타쓰지는 중국과의 전쟁에는 찬성할 수 없었거나
혹은 찬성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있었다」¹¹⁾라고 적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 줄 명확한 근거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시기 미요시는 전쟁에 대해 찬반이라고 하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연스럽게 조국 일본이 수행하는 전쟁을 무언으
로 동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필자가 보는 견해이다.

전쟁에 대한 찬반보다도 전쟁의 실체와 관련해서 시인은 자기 입
장을 가지고 있었는데¹²⁾ 「반소잡기(半宵雜記)」(『개조』 1938년 1
월호)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도저히 그 제대로 된 모습을 그 의미
의 편린이라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전쟁의 실체를 파
악하는 것이 시인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 국가와 국가 간

10) 『全集 10』 p.155.

11) 水口洋治(1984) 『三好達治論』林道舎、p.78. 미즈구치는 본고의 분석대상이
된 중일전쟁과 관련된 두 편의 시를 반전시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
즈구치의 지나친 해석이다. 미요시가 반전시를 썼다는 분명한 근거구절도 부족
하고 이 시기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이 견해는 타당치 않다.

12) 이 시기 미요시 타쓰지의 전쟁관에 대한 구체적 양상에 대해서는 박상도(2008)
「三好達治の戦争概念」(『일어일문학연구』65권, 한국일어일문학회를 참조.

의 역학구도 가운데 발생하게 된 제국주의 일본이 수행하는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시인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요시가 이러한 애매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전쟁과 관련해서 확신 가운데 말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중일 전쟁의 전장터인 상해에서 받은 하나의 ‘감동’이었다. 이어지는 문장 속에서 미요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감출 수 없이 분명한 것인데 나의 감정의 반응만큼은 확인한 셈입니다. 물론 그것은 가난하고 작은 나의 일개의 주관입니다. 하지만 또 나도 한 사람의 일본인이며, 지금도 중대한 시기에 처해있는 우리들 조국의 일원인 이상, 나의 단순한 주관도 또한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의 시계(視界)를 넘어선 위대하고 성스런 의의 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두뇌에서보다도, 심장에서 측량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말해 둡시다. 나의 감동을,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어떤 회의보다도 더욱 강하게.¹³⁾

미요시는 자신이 느끼는 감동이 자신의 「시계를 넘어선 위대하고 성스런 의의 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두뇌」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감동을 「조국의 일원」으로 느끼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일본제국이 수행하는 ‘성전(聖戰)’에 대한 암암리의 긍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시인이 전쟁의 실체에 대해 무지하고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전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2.2 시인으로서의 주관(主觀)

1937년 10월 이후 기록된 상해방문 후의 보고서 형식의 글을 접할 때 특징적인 것은 시인이 시인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뚜렷이

13) 『全集 9』 p.367.

드러내고 있는 점이다. 종군기자로서의 기사 작성을 문학자의 사명으로 인식하였다고 전술한 바 있지만 전쟁 상황에서도 시인으로서의 자각은 잃어지지 않았다. 「반소잡기(半宵雜記)」(『改造』1938年1月号)의 문장 가장 끝 부분에 본문과 한 줄을 띄우고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것 인양 미요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자네는 그곳에 있으면서 뭔가 시를 썼나?
나는 돌아와서 여러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
니다.
- 아니 쓸 수 없었어, 도저히 쓸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 감
상적이 되거나 영탄적인 기분이 되거나 하는 것은 싫어
서 그리고 부끄러웠기에 시 따위는 도저히 쓸 수 없었어
- 적어도 나 같은 자에게는 쓸 수 없어, 쓰고 싶다고도 생
각지 않았어, 또 나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2월 15일 記,¹⁴⁾

미요시는 전장터의 참혹한 실상을 보았다. 이 시기 그가 쓴 「상해잡관(上海雜觀)」에는 전장터의 참혹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길가의 갯더미 가운데 적병이나 원주민들의 시체가 널려져 있는 모습을 묘사한다든지 온 시체가 썩어서 부패되어 심한 악취를 풍기는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도 있다.¹⁵⁾ 극단적이고 참혹한 전장터의 현실을 목도하고 전통시인이며 서정시인인 미요시가 어떠한 시적인 제재(題材)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가 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은 그의 감정은 「부끄러움」이었다. 시인은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했을까? 아무튼 이 부분은 서정시인의 본질과 전쟁터의 참상이 충돌하여 시인으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킨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적어도 이러한 발언을 하는 순간만큼은 시인은 자신의 양심에 진솔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 시인이 '전쟁시를 썼다' 혹은 '반전시를 썼다'라

14) 『全集 9』 p.382.

15) 『全集 9』 p.319 참조.

고 하는 이분법적 논리로 시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쟁시와 반전시의 차원과는 별도로 이 시기의 미요시는 자기 나름의 명확한 시관(詩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미요시는 이 당시 전쟁을 제재로 시를 만든 작품들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러한 것이 그의 반전의 개념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다. 오로지 시에 대한 주관적 견해에 기초한 것이었다. 「말, 말, 말(言葉・言葉・言葉)」¹⁶⁾이라는 문장 중에서 그는 당시 오사카 시인 클럽에서 발행한 『전쟁시집』을 기증받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30여 명의 손에 의한 전쟁시를 모은 소책자이다. 빨리 통독해 보았는데 유감이지만 감명할 정도의 작품은 너무도 적었다. 시가라고 칭하고 있는 이상 시사(時事)를 다루는 전쟁을 대상으로 단순히 서정시풍의 방식과 취향을 달리하는 결국 시가로서의 중요한 한 부분을 빼고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인데 어느 작품을 보더라도 지엽적인 서사(叙事)에 관련된 일관되게 시정(詩情)이 결여된 졸렬(拙劣)한 산문의 시적 형태를 무시한 악시비시(惡詩非詩로) 타락되어 있는 것은 정말로 보기 괴롭고 유감이었다.」¹⁷⁾

미요시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에 관련된 시를 썼다는 것보다 그 시가 시로써 성립되기 위한 기본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시정이 결여된 산문시」를 「악시비시」로 규정한 것을 통해 그가 지향하는 이상적 형태의 시는 일정한 운율을 견지하며 시정을 겸비한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1937년 4월 10일 일본의 가미가제 비행기가 영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기타하라 하쿠슈는 그 감격을 시로 만들어 아사히신문에 실

16) 「新日本」에 발표되었지만 게재일자는 미상. 후에 『風蕭々』(1941年)에 수록됨.

17) 『全集 4』p.84. 이 문장은 전집의 「解題」부분을 참조해 볼 때 명확한 게재년도는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전집의 편찬자들이 시대 순으로 문장들을 편집한 경위를 고려해 보면 1940년 무렵 발표된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전쟁시집』의 시적풍조를 비판하는 가운데서도 미요시는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의 「西湖畔より」라는 작품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이 시도 전장의 상황을 그리는 시이다. 미요시는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그리는 가운데서도 서정성을 잃지 않는 부분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정(詩情)에 대해서 그는 다른 문장에서 「감흥(感興)의 순수(純粹)」, 「(ニュース의 詩的感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었다.¹⁸⁾ 이에 대해 미요시는 그해 6월에 「문학계(文学界)」에 발표한 「뉴스의 시적감흥(ニュースの詩的感興)」라는 문장을 통해 하큐슈의 이 시를 「시가로서 어떠한 확실한 감명도 없고 싱거운 물과 같은 범작」이라고 지적하며 「실감도 없고 과장된」시라며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¹⁹⁾ 무엇보다 미요시의 비판하고 있는 것은 시의 내용적 형식적인 면뿐 만이 아니다. 미요시가 지적하는 바는 하큐슈의 시를 포함해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그 시들이 저널리즘과 부합했다고 하는 것이다. 다음 인용문을 보도록 하자.

이러한 비시(非詩)를 비시라고 인식한 위에 수요자의 요구에 따랐을 것이다. 아무래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말하지 않았겠나 생각한다- 묘하게 억측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다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이런 류의 시가(詩歌)에 접할 때마다 내가 항상 낮간지럽게 느끼는 것은 그들의 시가가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졸렬함과 함께 거기에서 현대 저널리즘기구(機構)에 그대로 여러 작가들이 조종되어버렸다는 것, 뭐라 할까- 즉 너무나 쉽게 넘어가버리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²⁰⁾

이렇듯 이때까지만 해도 미요시는 시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고 있었다.²¹⁾ 시인의 본연의 자세에서 떨어져 시대와 영합하는 이들의 「졸렬함」을 비판하는 그의 엄격함은 전쟁시와의 어떤 관련성을 논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명확한 시적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난 시에는 비판을 서

18) 하큐슈의 시는 「遂げたり神風」라는 제목 하에 3연 18행으로 된 것으로 이후 이 시에 곡을 붙여 레코드화 되었을 정도로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시의 내용은 일본산 비행기가 무사고로 비행한 것에 대한 벽찬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다. 국산기에 의한 자체 연료를 가지고 영국까지 비행한 것에 대해 전 국민적인 축하의 무드가 있었고 많은 문학자들이 이를 찬양하는 글을 신문지상에 게재했다 (<http://blog.goo.ne.jp/sat-kamikaze/e/0202494898eb015e2be51f1691d916b3>, 2013년 1월 10일 검색)

19) 『全集 4』 p.62.

20) 『全集 4』 p.66.

21) 河野仁昭(1978)、前掲書、p.125.

숨치 않았다. 그것이 전쟁시이건 전쟁시가 아니건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전쟁시라도 그의 시적 가치와 부합하는 것이면 칭찬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였다.

3. 중일전쟁시기의 전쟁시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그가 중일 전쟁기에 어떠한 시를 썼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시인은 중일 전쟁 발발 후 얼마 되지 않아 두 편의 시를 썼다. 「영령을 고국에 모셔 들이다(おんたまを故山に迎ふ)」²²⁾와 「열외마(列外馬)」²³⁾라고 하는 작품이다. 태평양 전쟁기간 중에 본격적인 전쟁시를 썼던 시인이지만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전쟁과의 관련성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작품뿐이다. 전자는 중일전쟁 발발 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발표된 것이고 후자도 명확히 단정할 수 없지만 발표 시기는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두 작품 모두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전자가 시인의 상상력이 그 기반이 되고 있는 것에 반해 후자는 시인의 전장터의 체험을 기초로 제작된 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두 작품 중 수작(秀作)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령을 고국에 모셔 들이다」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3.1 숭고(崇高)한 장송(葬送)의 노래

「영령을 고국에 모셔 들이다」는 『구사센리(艸千里)』(1939년)에 수록된 작품들 중의 백미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 시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볼 때 미요시 시인의 평소의 시에 대한 지론이 그대로 반영된 시라고도 볼 수 있다. 음악적인 시의 운율을 문어체의 고풍스

22) 원래 이 작품은 「英靈を故山の秋風裡に迎ふ」라는 제목으로 1938년 10월호 「文學界」에 발표된 것이었는데 『艸千里』(四季社刊, 1939년 7월)에 수록될 때 「おんたまを故山に迎ふ」로 수정되었다.

23) 「おんたまを故山に迎ふ」와 같이 『艸千里』(四季社刊, 1939년 7월)에 수록.

러운 기법으로 풀어가고 있으며 그 내용도 내면 깊이 스며드는 서정성을 느끼게 해 주고 있어 시의 완성도의 측면에서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이 시가 「열외마」와 달리 직접적으로 중일전쟁의 전장터의 상황을 노래한 것이 아니지만 시인이 전장터에서 받은 개인적인 '감동'과 무관하게 성립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작품이다. 그가 「나의 시계를 넘어선 위대하고 성스런 의의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한 알 수 없는 주관적 감동이 이 시의 저변을 흐르고 있다. 그러면 우선 해당 시를 조금 길지만 전문 인용해 보기로 한다.

둘도 없는 조국을 위해서 라며/둘도 없는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차자식도 친족도 버리고/출정하신 그 병사는 티끌만큼도/돌아올 날을 기대하지는 않았겠지/아득한 바다와 산을 넘어/실로/돌아올 기약 없이 출정하신/그 병사는

이 날 가을바람 쓸쓸하게 검푸르게 부는/고향의 해변가 마을에/영령께서 돌아오시는 것을/깊은 밤에 깊이 모셔 들인다며/누런 등불을 받쳐 들고/마을 사람들은 가을비 내리는 어둠 속에/기다린다 파도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구름은 빠르게/달도 또한 곧장 지나가는 저녁 무렵 슬프게 음악소리 들려온다

나그네의 여행의 한 날을/생각지도 않게/나도 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오늘 밤새껏/음악 소리 끊이지 않고/고요하게 계속 흐르고/뜻밖에 다가오는 것의/지극히 장엄한 것 앞에서/가슴이 벅차/삼가/머리를 떨군다.

나라를 지키려고 지금은 죽은 사람도 어릴 때/먼 날에는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함성을 지르고/원수를 치겠다며 용감히 일어나서/전장놀이도 하셨겠지/노송나무 뿌리 언저리에서 /곰곰히 그때 일이 떠오른다

달님도 또한 구름 사이를 달리고/마을에 떨어지는 그늘 아래에서/떨어지는 하얀 깃발/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의 노래 없어도 되지 않을까/아무런 말도 없는 한 장의 형꼴이/고향마을의

바람에 잘도 춤을 추네/최상의 손놀림으로 추는 춤이로다.

다시 돌아오지 않겠노라며 출정나가신 날의/맹서도 책임도
모두 이루시고/무엇을 남기셨을까/남김없이 내 몸을 내어던지
시고/빠가 되어 돌아오셨네

둘도 없는 조국을 위해서라며/둘도 없는 자신의 목숨 뿐 아
니라/처자식 친족도 버리고/출정나가신 그 병사의/조그만 뼈는
돌아오셨네²⁴⁾

이 시는 모두 7연 52행으로 되어 있다. 명령을 맞이하는 고향사
람들의 명령을 기다리는 장면에서부터 명령을 맞아들이는 장면을
시간적 순서대로 그리고 있다. 아무 말도 없이 돌아온 명령의 심정
을 헤아려 시인은 애도의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1연에서 출정에 임하는 병사는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처자와 친족을 버리는 비장한 마음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던지게 한 명분은 바로 「둘도 없는 조국을 위해서」
이다. 여기서 '조국'이란 가족과 친족과 자신의 생명을 잃어서라도
지켜야 되는 대의(大義)로 표현되고 있다.

2연에서는 명령을 맞이하는 고향산천의 분위기를 묘사한다. 시간
적으로는 어느 가을의 깊은 밤이다. 공간적 배경은 어느 해변가의
마을이다. 시인은 명령을 맞이하는 고향사람들의 숭고함과 슬픔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변의 정경을 아주 리얼하게 담아내고 있다. 깊은
가을밤에 바람이 쓸쓸하게 분다. 그 바람은 검푸르다. 바람의 색채의
이중성이 부각되므로 슬픔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늦가을비도 내린다.
늦은 가을비는 슬픔으로 가득찬 마을 사람들의 애도의 마음이며 머
지않아 다가올 초겨울의 한기를 한 층 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우산을 받쳐 드는 대신 누런 등불을 들었
다. 누런 등불은 어두움을 밝히는 도구이지만 명령이 되어 돌아오
는 병사의 숭고한 영혼이 깃들어있는 상징이기도 하다.

미요시는 이러한 숭고하고 슬프고 애절한 분위기를 둘러싼 주변

24) 『全集 1』 p.360에서 인용. 원문의 인용은 생략. 시의 번역은 필자에 의한 것임.

정경을 서정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다. 「그 사이 파도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하늘의 구름은 빨리 지나고 달도 또한 곧장 지나가 그로부터 슬프게 음악소리 들려온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장면이다. 깊은 가을밤에 비 맞으며 파도소리를 듣고 있다. 밝게 뜬 하늘의 달과 구름의 이동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멀리서 구슬픈 음악소리가 들려온다. 잔잔히 감동이 일어나는 장면이다. 하지만 이 모든 정경들이 돌아오는 명령을 맞이하기 위함임을 상기할 때 파도소리, 음악소리는 장례를 위한 거룩한 장송의 노래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명령을 모셔 들이는데 있어서 마을 사람뿐 아니라 고향 산천마저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정시인 미요시의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3연에서는 시인이 스스로를 명령을 모셔 들이는 고향산천마을에 우연히 들른 방랑자로 묘사하고 있다. 시인은 외부인이지만 이 날 하루만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설정이다. 외부인인 방랑자의 시선에서 그려지는 것은 전사한 한 병사에 대한 시인의 객관적 태도를 보여주는 유효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여행을 하다 뜻하지 않게 들른 마을에서 뜻하지 않은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은 전사자 가족이 당한 슬픈 소식 또한 뜻밖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다.

3연에 이르러서 명령을 맞이하는 마을 사람들의 극도로 긴장되고 고양된 감정을 「지극히 장엄한 것 앞에서 가슴이 벅차고 옷깃을 여미며 머리를 떨군다」로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명령을 맞아들이는 순간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눈앞에 명령이 다가오는 것을 직접 보고 있는 장면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4연에서 시인은 명령의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한 줌의 재가 되어 버린 전사자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이라는 시인의 상상력은 명령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가중시킨다. 특히 나무 아래에서 병정놀이 하며 놀던 그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실제 전쟁터에 나아가 싸움을 하다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현실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의외성의 사건이라는 것과 불행이라는 점을 강조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간접적이거나 미요시 시인의 전쟁에 대한 자세를 읽을 수 있다. 적어도 여기에서 미요시는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에 대해 긍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연에는 하얀 깃발아래 명령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는 일종의 의식이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린 명령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엄숙한 순간인 것이다. 하지만 시인은 이러한 찬양의 노래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다. 싸늘한 시신이 되어 버린 그 죽음 앞에 이러한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질책의 소리로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시인의 마음은 필력이는 그 한 장의 형깊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서 더 역력히 나타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해야 할 말이 많지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슬프고 애절함의 깊이를 헤아려 볼 때 찬양의 노래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다.

그리고 6연과 7연에서 1연의 내용을 중복시키며 뼈가 되어 돌아온 명령의 구체적 장면을 그리고 있다. 「맹서도 책임도 모두 이루셨다」는 언급은 죽은 명령을 찬양하는 시인의 마음이다. 그리고 7연에서는 3행까지 1연의 반복어구로 이어지다가 4,5행에서 명령이 증표의 뼈가 되어 돌아왔음을 말하며 마무리 짓고 있다.

3.2 조국의 사상을 초월한 시정(詩情)

쓰루오카 요시히사(鶴岡善久)는 이 시에 대해 「전쟁시 중에서 절창이라고 할 만한 작품」이라고 하면서도 서정시인 미요시 타쓰지의 자연관조의 태도 가운데 있는 감성이 죽은 자에게 깊이 이입되어, 「둘도 없는 조국을 위해서」라고 하는 국가 신봉으로 단숨에 무너져 내렸다」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 시에서 감동할 부분이 있다면 「사상으로서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국가에 흡수되는 참상을 또한 서정이 초월하고 있는 점」인데 「그 뒤에 숨겨진 정념은 그 이후의 격렬한 전쟁찬미의 전쟁시에 직결되는 것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²⁵⁾

「둘도 없는 조국을 위해서」라고 표현한 부분을 들어 이른바 황국

25) 池川啓司(1973) 「三好達治の戦争詩」『中央大学国文』第16号、中央大学国文学会、p.71 재인용.

사상에 기초한 성전(聖戰)으로서의 의식이 함의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국가신봉에 대한 사상이 저변에 흐르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국가주의 색채를 초월하는 '서정성'이 작품 속에서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 시의 서정구조는 국가주의 사상을 감싸는 서정주의라고 하는 「감성적 질서」²⁶⁾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시는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전장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직접적인 전쟁시는 아니다. 시의 제작의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쟁 협력시도 물론 아니다. 작품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은 국가주의 너머에 있는 서정주의이다. 적어도 시인이 의도한 바는 그렇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이 시를 '전쟁협력시'와 '반전시'의 계열에 넣고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작품의 본질을 외면하고 이중 태일의 국면으로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시에 대해 반전시라고 언급하는 사람 중에 미즈구치 요지(水口洋治)는 이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시에는 한 병사의 죽음은 조국과 충분히 대치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다. <둘도 없는 조국을 위해서라며>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는 위정자가 그와 같이 말하는데... 라고 하는 말투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 중국전쟁에 대한 타쓰지의 혐오이며 그렇게 해서 출정해서 전사해 버린 명령에 대해서는 깊은 진혼의 충동이 작용하고 사자를 추도하며 맞이하고 싶다는 심정이 나타나 있다.²⁷⁾

「영령을 조국에 맞아들이며」 이 시의 첫 행 「둘도 없는 조국을 위해서 라며」라는 부분에서 미즈구치는 병사의 의지와 무관한 일본 제국의 강압성이 개입되었다고 보고 있다.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제국의 강압에 대한 암시는 「대 중국전쟁에 대한 타쓰지의 혐오」라고 하는 부분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시인은 과연 그의 말대로 중일

26) 이 「감성적 질서」라는 말은 요시모토(吉本隆明)가 「사계파의 본질(四季派の本質)」에서 미요시를 비판하며 구사한 용어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중일전쟁시기의 미요시의 전쟁관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므로 요시모토의 이 유명한 평론의 인용 및 분석은 다음의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27) 水口洋治(1984)、前掲書、p.116.

전쟁에 대한 혐오를 느끼고 있었을까? 개인의 주체적 의사를 말살하는 제국의 폭력성에 항거하는 자세가 그에게 있었을까? 미즈구치는 이 시가 「국가 대 개인이라는 인식」에 입각하여서 쓰여졌다고 하고 또 「반전시라 불리는 시와 같은 인식」에서 쓰여진 ‘반전시’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즈구치의 견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추측일 뿐이다. 전쟁시와 관련한 미요시의 비판언설이 대세인 가운데 미즈구치의 이러한 견해는 미요시 옹호를 위한 무리한 변명처럼 들린다.

전술한 바대로 이 시가 태평양전쟁 이후의 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시의 부류에 속하느냐? 아니면 반전시인가? 하는 2분법적 논리는 이 시기의 미요시 작품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 두고 싶은 점은 태평양전쟁 시의 격렬한 전쟁 찬미시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적어도 이 시기 중일 전쟁기의 이 작품은 전쟁 찬양의 격렬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의 내용도 숭고하긴 하지만 부드럽고 서정적이다. 시인의 제작의도 또한 전쟁협력시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는 태평양 전쟁기의 발판이 되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조국’에 대한 사상이다. 조국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이 시는 그 표현방법이 아무리 서정적이고 숭고함을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15년 전쟁의 열기가 달아오르던 그 시기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충분히 전쟁시와 직결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시인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의 숭고함을 강조하지 않는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숭고하다 여긴 사람을 강조한다. 시인의 관심은 희생당한 병사를 맞이하는 마을 사람들의 순진한 모습에 있는 것이지 이들을 슬픔으로 내몬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독자는 이러한 시인의 의도를 따라 작품을 읽는 것이 아니다.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따라 작품을 읽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태평양 전쟁기의 전쟁시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다.

3.3 전의 고양(戰意高揚)의 구조(構造)

구니나카 오사무(国中治)는 이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찬반의 양극단 사이에 다양한 평가 견해가 있고 여기에서 정리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대세적으로 볼 때 이 시의 근저에 흐르는 사자(전사자)에 대한 진혼의 정은 다쓰지의 자연관조에 의해서 성립된 시정에 의해 겨우 당시의 지배체제의 전의고양(戰意高揚)을 억제하고 있다.²⁸⁾

「찬반의 양극단」의 다양한 평가라고 하는 지적은 그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이 작품이 「전의 고양」을 위해 쓰여진 전쟁협력시인가? 아니면 전쟁에 대한 혐오를 표현한 반전시인가? 하는 논의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은 본고의 생산적 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면 구니나카의 지적처럼 이 시가 전의고양을 억제하고 있는가? 이 말은 전의고양이라고 하는 주조음이 저변에 흐르고 있는데 시인의 시정이 그것을 억제했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일 시인이 이런 류의 시를 쓰고 시정(詩情)을 확보하는 작업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전의 고양의 기운이 드러날 수도 있었다는 의미도 된다.

하지만 「전의 고양」 운운하는 것은 이 작품을 직접적인 전쟁시의 범주에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다.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이들은 명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불행한 현실을 시인이 비꼬았으므로 반전시라고 한다. 그러므로 어느 입장에 서서 이 작품을 보아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이 작품을 이해함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그것은 시인의 제작 의도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작된 작품이더라도 공적영역에서 수용될 때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인은 명확한 시관(詩觀)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시기의 그에게 있어서는 전쟁시인가? 반전시인가? 하는 것보다 시

28) 国中治(2005) 『三好達治と立原道造』 至文堂、p.130.

가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더욱 중요했다. 그는 당시 가지고 있던 자신의 시관(詩觀)을 이 작품을 통해서 관철했을 뿐이다.

하지만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국민시인의 입장에서 그의 작품은 국가주의의 공적영역에서 수용되어 「전의 고양」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여지는 충분히 생각 할 수 있다. 특히 작품이 전사자에 대한 진혼의 정을 숭고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러하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병사를 진혼하는 것은 병사의 죽음을 숭고히 보는 것이며 결국은 조국이 성스럽다고 하는 의식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성스런 국가 즉 황국(皇國)에 대한 국가개념의 고양으로 연결된다. 작품 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진혼에 대한 숭고의정이 절정에 다다를 때 동시에 '조국'에 대한 국가의식도 고양된다.

「둘도 없는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도 '조국'을 위해서였고 「처자식 친족」을 버린 것도 '조국'을 위한 것이었으며, 돌아올 날을 기대하지 않고 아득한 바다와 산을 넘어간 것도 바로 '조국'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명령이 되어 돌아온 곳 고향산천도 바로 '조국'이며 숭고한 '영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조국'을 위해 전사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모든 것 위에 '조국'은 상위개념으로 존재하게 된다.

신보 유지(新保祐司)는 「조국을 생각하는 모리시게 히사야의 낭독(「祖国」を思う森繁久弥の朗読)」이라는 문장에서 이 작품 「영령을 조국에 맞아들이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²⁹⁾ 그는 국가의식을 새롭게 상기시켜준 이 시에 대해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시집의 작품 중 미요시의 작품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모리시게의 낭독으로 이 시를 듣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둘도 없는 조국을 위해서」 「출정나가신 병사」야 말로 '국민'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일본인일 것이다. 지금의 열도에는 '주민'이나 '시민' 혹은 '인민'은 있지만 '국민'은 없어지지 않았는가? '조국'을

29) www.sankei.co.jp/seiron/opi-sern/0911/1125opi-se1.html(2013년 10월 19일 검색) 이 문장은 2009년 11월 10일에 죽은 모리시게 히사야를 추모하며 쓴 글이다. 모리시게 88세 때 낭독하여 만든 일본근대시집 CD 「모리시게 히사야 애송시집(森繁久弥 愛誦詩集)」의 목록에는 미요시의 작품 「영령을 조국에 맞아들이며」가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는 국민의식의 각성이야말로 앞으로의 보수 재생에 중요한 것이다. 모리시게씨의 낭독은 이 점을 통절하게 느끼게 해준다.³⁰⁾

시민이나 주민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희박한 시대에 조국에 대한 국민의식을 각성시키는 미요시의 작품에 감동을 받은 신보의 이 말은 「영령을 고국에 맞아들이며」라는 작품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공적 영역에서 수용되어져 가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중일 전쟁기의 '조국'에 대한 개념과 반세기도 더 지난 지금 시점의 '조국'에 대한 고양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수 재생」을 바라는 지배체제의 입장에서는 공적영역으로의 흡수가 가장 용이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3.4 진혼(鎮魂)의 역할(役割)

3연에서 시인은 스스로를 나그네로 설정하고 있다. 정처 없이 여행하던 나그네가 영령을 맞아들이는 어느 마을에 잠시 들러 마을 사람들과 같이 영령을 진혼하고 있다. 이는 이야기를 끌고 가는 시적화자인 자신을 제3자의 위치에 두는 구도를 취하는 것이고 '진혼'의 성격을 마을 차원이 아니라 외부의 요소가 개입된 공적인 것으로 격상시키는 결과가 된다. 결국 이러한 설정은 영령의 죽음에 개인적 애도를 표하는 것이 결국 모든 국민에게까지 공감되어져야 할 성질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시인이 나그네라고 하는 외부의 존재로 등장하는 설정에 대해서 미조구치 아키라(溝口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연에서 나그네인 나는 마치 노(能)의 슈라모노(修羅物)³¹⁾에 있어서 여행하는 승려와 같이 등장하고 전사자의 영을 위로

30) www.sankei.co.jp/seiron/opi-sern/0911/1125opi-se1.html(2013년10월 19일 검색)

31) 무인(武人)의 영(靈)을 주인공으로 전쟁을 제재로 한 노(能). 대부분은 수라도(修羅道)에서 고통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新村 出編(1998) 『広辞苑』제5판、岩波書店)

하고 치유하며, 순화(純化)하여 천상으로 인도한다. 미요시는 그것을 시에 있어서 성취한 것이다. 이것은 '둘도 없는 조국을 위해' 순사한 사자, 영령에 대한 너무나도 절묘한 접촉방식이 아닌가? 그것은 만요 이후의 만가(挽歌)의 운율이기도 하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시인은 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전쟁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인가?³²⁾

〈노〉에서의 여행하는 승려의 역할은 죽어서도 원한을 지닌 영혼의 이야기를 듣고 애도하는 것이다. 즉 죽은 영혼과 이 세상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인 것이다. 이 작품에서의 나그네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그네가 부르는 만가는 조국을 위해서 전사한 영령과 자연스럽게 접촉을 하게 한다. 그리고 '영령'의 '넋'을 달래는 시인의 노래는 자연스럽게 성전을 수행하는 조국을 위해 부르는 노래로 확장되어 간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이 전쟁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시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이 작품은 「영령에 대한 절묘한 접촉방식」으로 인해 「전쟁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뛰어난 서정성과 미의식이 가미된 시어(詩語)의 선택으로 노래한 이 만가는 공적영역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이 작품의 수용성을 증대시킨다.³³⁾

비록 시인이 스스로를 일개 나그네의 신분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전의 「감동」을 재현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감동」이란 그가 상해의 전쟁터에서 「조국의 일원」으로서 느꼈던 그 감동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태평

32) 溝口章(2011)『三好達治論 - 詩の言語とは何か -』土曜美術社、p.304.

33) 전쟁과 관련된 미요시의 시 중에서도 이 작품은 수작으로 꼽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쟁시의 범주에서 평가할 때 작품의 문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람들도 있다. 미조구치 아키라(溝口章)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시어로서의 문어의 미의식도 그 맛도 기쁨 있는 정취도 불필요한 국가존망의 위기의식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지상의 관념이 되어 미요시의 시를 삼켜버렸다」(溝口章、前掲書、p.305) 이러한 비평적 견해가 전쟁시 자체에 대한 연구를 저해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시정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전쟁 발발 후 미요시가 쓰게 될 본격적인 전쟁시의 단초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평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미요시 타쓰지의 전쟁 관련시를 고찰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중일 전쟁기에 쓰여진 여러 문장과 한 편의 시를 중심으로 논을 전개하였다. 우선 그가 상해를 방문하여 취재한 여러 문장들을 통해 중일전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미요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는 애매함을 느끼면서도 또한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전쟁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명확한 시관(詩觀)이 있었다. 시의 기본적 요소를 갖추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쟁시 여하를 막론하고 비판적이었다.

중일전쟁기에 남긴 한 편의 시를 분석해 볼 때 이 시는 미요시 시인의 평소의 면모가 잘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음악적인 리듬감이 있고, 고풍스러우며, 그 내용도 서정성이 풍부하였다.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도 조국에 대한 사상을 초월할 정도의 풍부한 시정이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다만 이 시에 대해서는 전쟁 관련논쟁이 있는데 이는 이 시의 효과적인 논의를 저해하는 것이다. 다만 이 작품을 이해함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그것은 시인의 제작 의도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작된 작품이더라도 공적영역에서 수용될 때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전의 고양의 역할을 일정정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시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당시의 시대 상황 가운데 이 작품은 공적인 영역에서 활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작품이다. 특히 시인을 나그네로 설정하여 죽은 영령을 위로한다고 하는 구도는 이 시가 국가개념의 고양이라고 하는 측면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참고문헌

- 池川啓司(1973) 『三好達治の戦争詩』『中央大学国文』第16号、中央大学国文学会、p.71.
大門正克(2009) 『戦争と戦後を生きる 十五』小学館、p.111.
小田久郎篇(1979) 『現代詩読本7 三好達治』思潮社、pp.107-125.
国中治(2005) 『三好達治と立原道造』至文堂、p.130.
桑原武夫(1967) 『思想との対話5 事実と創作』講談社、p.111.
河野仁昭(1978) 『四季派の軌跡』白川書院、pp.112-125.
水口洋治(1984) 『三好達治論』林道舎、pp.78-116.
溝口章(2011) 『三好達治論-詩の言語とは何か-』土曜美術社、p.304.
三好達治(1964) 『三好達治全集』第1巻、筑摩書房、p.360.
_____ 『三好達治全集』第4巻、筑摩書房、pp.62-84.
_____ 『三好達治全集』第6巻、筑摩書房、p.61.
_____ 『三好達治全集』第9巻、筑摩書房、pp.367-382.
_____ 『三好達治全集』第10巻、筑摩書房、p.155.

<http://blog.goo.ne.jp/sat-kamikaze/e/0202494898eb015e2be51f1691d916b3> (2013년 1월 10일 검색)
www.sankei.co.jp/seiron/opi-sern/0911/1125opi-se1.html (2013년 10월 19일 검색)

성 명(한 글) : 박 상 도
(한 자) : 朴 相 度
(영 문) : Park Sang-Do
논문영어제목 : War Poetry of the Sino-Japanese War period
- Focusing on 「ON TAMAOKOZANNI MUKAU」 -
소 속 : 서울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E-mail : edosamurai@daum.net

투 고 일 : 2014년 1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1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2월 4일